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확정

■ 호남권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 밀려 F1·J프로젝트 등 전남 성장동력 상실

광주, 건의사업 하나도 포함 안돼 현실 외면한 선정 영남권은 10개 사업 추진 지역간 편중 심화 불보듯

정부가 10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으로,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광역경제권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첨단 R&D특구 지정 등 미래 전략 산업을 대폭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할 형편이며, 전남도 역시 최대 현안인 J프로젝트 및 F1사업이 선도 프로젝트에서 제외돼 추진력을 잃게 됐다.

반면 '동남권'과 '대경권' 2개 권역을 보유한 영남권은 모두 10개 선도사업을 추진케될으로써 호남권(5개 사업)과의 사회간접자본의 편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현실 외면한 선정=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전국 7대 권역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뒀다. 사회간접자본 보유 비율이 비교적 높은 광주시는 당

초부터 불리한 입장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시는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조성 ▲광주 R&D 특구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인프라 부문 5개 사업의 채택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비율과 수요 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업을 선정, 광주의 확산도로 건설을 호남권 사업에 포함시켰다. 사실 광주의 경우 외곽순환도로 구축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전남이 선도프로젝트 선정을 건의한 사업은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조성 ▲J프로젝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적 개최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 및 조기완공 ▲사남해안 일주도로 중 교량 조기건설 ▲글로벌 농산물 물류기지 ▲서남권 경

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7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제대로 반영된 것은 서남해안 일주도로 중 교량건설(압해~압태, 화양~적금 연륙교) 사업 한 개 뿐이다.

특히 새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이미 특수목적법인을 신설하는 등 상당한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는 J프로젝트 및 F1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물론 '호남고속철 적기 완공'이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있지만 이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예상되어 왔던 것인데다, 지역의 바람인 '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가 빠져있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과 파장=광주시의 경우 '5+2 경제권 사업'에 시가 채택을 건의한 사업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이들 사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5+2 경제권 사업'의 소규모 사업(5조5천억원)인 '신성장 선도산업(지식경제부)'에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사업이 포함된 것이 위안이다.

J프로젝트와 F1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했던 전남도는 이번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서남해안 도로에 개발 등 교량·도로 건설에 만족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남해안을 관광의 메카로 개발함과 동시에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통해 부를 창출하려 했던 모든 계획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특히 호남권 선도프로젝트 중 최우선 과제인 '새만금 조기 개발'은 사업 성격상 J프로젝트와 흡사하기 때문에 전남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새만금 개발이 신항만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국제공항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과 투포트(Two Port) 정책의 한 축인 광양항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5+2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지역	선도 프로젝트
수도권	1.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인천)
	2.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3. 인천지하철 2호선
영남권	4.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등)
	5.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
	6. 물류 고속도로(제2경부, 제2서해안)
	7.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호남권	8. 동서4축고속도로(음성-충주, 충주-제천)
	9. 새만금개발 (새만금 개발, 신항, 공항)
	10. 여수 EXPO (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11. 서남해안 연륙교 (압해-압태, 화양-적금)
대경권	12. 호남고속철도
	13. 광주외곽순환도로
	14. 경전선 복선전철 (부산-마산, 진주-광양)
	15.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대동권	16. 동북4축 고속도로(포항-영덕)
	17. 마산-거제 연륙교
	18. 부산외곽순환도로
	19.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전남권	20. 동서6축 고속도로(삼주-영덕)
	21.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22.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조성
	23. 대구외곽순환도로
기타권역	24.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25. 남북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등)
	26. 원주-강릉 철도
	27. 제2경동 고속도로(경기광주-원주)
제주권	28. 서귀포 크루즈항
	29. 제주해양과학관
	30. 영어교육도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397-3000 www.pdc.or.kr
언론중재위원회

■ 광주·전남도 반응

광주 “미래 기약 사업 빠져 실망” 전남 “대형사업 채택 안돼 불만”

◇광주시=시는 5+2 경제권 선도사업으로 건의한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조성 ▲광주 R&D 특구 등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5개 부문 가운데 단 1건도 채택되지 않자 아쉬워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첨단·문화·과학산업도시라는 광주를 미래로 기약하는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선정에서 희망했던 5개 사업 가운데 단 1개 사업도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광소재 산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고 있다. 현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과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건의한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돼 향후 광주시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남도=J프로젝트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스러워했다. J프로젝트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전남도의 미래를 기약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 선도 사업에 채택된 호남고

속철과 서남해안 연륙교 건설, 그리고 당초 전남도가 신청하지 않은 여수엑스포 사업이 포함됐지만 연륙교 사업을 제외하고는 핵심 선도사업 선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실익을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호남고속철도도 '내년 착공 적기 완공'이라고만 돼 있을 뿐이어서 선도사업을 통해 2012년 조기완공과 무안공항 경유를 이루려고 했던 도의 의지가 반영될 지는 회의적이다.

/홍행기·윤영기기자 redplane@

특별기고



이건철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면서 호남권과 관련하여 내놓은 구상은 광주권을 중추거점으로 광양·여수·순천~무안·목포·영암·해남~새만금을 연계해 '호남권대삼각 광역경제권'개발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환황해경제시대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활성화전략 구상은 호

에 대한 추진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 대해 광주와 전남은 소외감을 완전히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 호남광역권의 비전에 '문화예술 창조지역'을 내세우고도 광주문화중심도시 관련 핵심사업인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찾아볼 수 없고, 광주권과 새만금, 목포권, 광양만

점공항으로 개항한 무안국제공항과 직선거리로 100km밖에 안되는 군산에 국제공항을 건설한다는 구상도 현명한 공항정책적인 의문이 든다.

호남인 공감하는 선도 프로젝트 선정을

남권을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새만금지구조기 개발(신항, 군산공항 확충)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적기 확충 ▲서남권 다도해 개발(압해~압태간, 화양~적금간 연륙교 건설) ▲호남고속철도 적기 완공 ▲광주권 외곽순환도로 구축의 5가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

권 등 대삼각지구간 연계 교통망 계획도 제외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에도, 서남권관광벨트 저도시의 선도사업으로 불과 2년 후인 2010년 개최를 앞두고 있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사업이 제외되었고, 서남권의 최대 현안인 J프로젝트에 대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또한 환황해권시대 서남권의 대중국 교류거점 역할을 담당할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 프로젝트가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호남권의 거

마지막으로 선도프로젝트 추진 시기를 광주·전남지역 사업은 '작기'로 명기한 반면, 유독 새만금사업만 '조기' 개발로 명기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부디 호남성공시대를 열어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호남권의 정확한 실상 파악과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정한 호남권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신중한 재검토나 추가 반영을 주문하고 싶다.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